우암학원 창학 70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38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 69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음력 12월 21일 | kwangju.co.kr

빗발치는 태양광·풍력발전 민원 주민과 이익 공유 방안 마련 시급

신안군 비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이 늘면서 각종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민원 5년 간 498건…주민 반대에 착공 못하기도
주민 지분 참여 유도·환경 훼손 우려 제거 등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정부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남도내 공공 및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민과의 이익 공유 방안의 광범위한 적용, 산림훼손 여부 등 설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풍력 민원은 모두 498건으로, 매년 100건에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태양광이 414건, 풍력이 84건으로 태양광이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6건(태양광 20건, 풍력 26건), 2017년 75건(태양광 51건, 풍력 24건) 등이었던 민원은 2018년 169건(태양광 153건, 풍력 16건)으로 폭증한 뒤 2019년 116건(태양광 109건, 풍력 7건), 지난해에는 92건(태양광 81건, 풍력 11건) 등 100건 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271건)였으며, 생활권·건강권 침해(131건), 지가 하락 및 농작물 피해(84건),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53건), 문화재 보존 및 보상 요구 등 기타(6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84조6000억원, 지역균형뉴딜 75조4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경우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민원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남은 신안 해상 일원에 민간 자본 46조원 등 48조원을 들여 8.2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다. 사업 대상지인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단지 지정을 심의할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신안군의 참여 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사업자와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주민 민원, 환경 훼손 우려 등이 자연히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해남 문내면 용암리 176만평에 한국남동발전, 모아건설 등이 7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400MW 설비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 해남 신재생복합단지는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2019년 6월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지역 발전기금으로 3000억원 및 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발전사 측은 1200억원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85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96MW 설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던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일원의 도민발전소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전남도는 주민들이 지분을 참여하게 하거나 발전소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중심에 서 있는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계속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군들이 서둘러 주민과의 이익 공유, 환경 훼손 우려 제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5년 전 사라진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6면
굿모닝 예향 - 잃어버린 역사 마한 ▶18·19면
KIA, 챔스필드서 2021 스프링 캠프 개막 ▶22면

꼬리 무는 교회발 코로나 연쇄감염

광주서 여고생 8명 확진
공무원·시내버스 기사까지
시내버스 감차 가능성도

광주가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성인오락실, 학교,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으로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안디옥 교회 관련 3명, 성인 오락실 관련 2명, 기존 확진자 관련 3명, 해외유입 1명 등 9명이 신규 확진돼 지역 확진자는 모두 1824명으로 늘어났다. 입국자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감염원의 n차 확진자다.

최근 감염 경로별 확진자는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121명, 안디옥교회 관련 107명, 성인 오락실 관련 47명 등이다. 감염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 짧은 국제학교와 달리 교회와 성인 오락실 관련 n차 확진자들은 확산 추세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역추적하면 안디옥교회와 성인 오락실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광주 첫 교내 집단감염 사례인 송원여상 확진자 8명 가운데 1명도 안디옥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다니는 원아 가족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폐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서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1일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일시 폐쇄됐다. 지난 29일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가 다녀간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도 일시 폐쇄됐다. 또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광산구청과 동구청 세무과도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격리하는 등 방역 조치했다.

광주에선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꼽히던 시내버스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진 못했다. 지난 30일 성인 오락실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모 시내버스 회사 기사 A씨(광주 1769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한 기사 등 47명이 자가격리되고 119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5·27·28·29일 등 총 나흘간 광주 북구 장등동 차고지와 차고지 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등동 차고지는 4개 버스회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을 거쳐 가는 시내버스는 15개 노선 184대에 이른다.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 생활치료센터의 잔여병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날 현재 지역 내 총 가용 병상 873개 중 462개가 사용 중으로 남은 병상은 411개다. 그러나 잔여 병상 가운데 336개(72.7%)는 전남·북과 공유 중인 순천의료원(87개), 강진의료원(31개), 목포의료원(67개), 군산의료원(151개)에 있다. 광주에는 소방학교생활치료센터 110개 중 11개, 인근 나주 한전 KPS 인재개발원 80개 중 4개만 남았다. 특히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남대병원은 15개 중 7개, 조선대병원은 10개 중 2개 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81개 중 43개가 남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추가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타 지역 이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설 반대" 73%

시민운동본부 주민 588명 설문
"부영에 과도한 특혜 중단해야"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부영주택 측 요청을 받아들여 나주시가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가 주민 58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해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두고 응답자 73.2%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은 62.4%, 약간 부당하다는 10.8%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의견은 15.3%에 그쳤다.

부영골프장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처럼 체육시설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공공 기여율(기부 등)을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2.5%를 차지했다. (부영주택 측 개발계획이 대부분 반영된) 기존 방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은 단 8%에 그쳤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혁신도시 성인 남녀 주민을 포함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등 5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나주시와 부영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주민들의 생각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내놓은 땅을 제외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골프장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단지 신축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역민들은 부영주택측 요구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없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 및 아파트값 하락 ▲녹지·공원 비율 축소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아파트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은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부영주택측은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오는 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하는 등 부영주택 측 개발계획이 대부분 수용된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d 4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d 4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6),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9단),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6),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